

# 광주·전남 국가産團 생산액 사상최고

## 여수·평동 등 8곳서 5월 한달 6조원대...수출·고용도 함께 늘어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국가산업단위의 월간 생산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이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여수산단 등 광주·전남지역 8개 국가산단의 5월 생산액이 6조1355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월(6조794억원)보다 561억원 증가한 것으로 4개월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달(6조63억원)보다는 2.1% 늘

었다.

사상 최고 생산실적은 여수산단이 주도했다.

여수산단은 지난 5월 5조5797억원의 생산액을 기록, 지역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광주 첨단산단(1762억원), 광양연관단지(1346억원), 대불산단(1209억원), 광주 평동산단(707억원), 대불 외국인산단(342억원), 장성동화산단(121억원), 장성 삼계산단(71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출도 24억8400만달러로 전달(23

억8500만달러)보다 4.1% 증가했다. 가동률은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87.9%로 조사됐다.

생산 호조에 따라 고용도 덩달아 늘었다. 광주·전남 국가산단 고용인원은 전달보다 737명 늘어난 4만 2437명이었다.

전국 국가산단 월간 생산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23개 국가산단의 5월 생산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전달(40조114억원)보다 2.5% 증가한 41조148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분야 생산이 각각 0.3%, 11.4% 증가했고, 수출도 7.3%, 4.4% 늘었다.

반면 운송장비 업종은 선박제조 실적 감소와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과 수출 모두 1.3%, 12.0% 감소했다.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산단 경제지표 호조는 국내 제조업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00인 이상 사업장 64% '타임오프' 합의

## 시행 한달...민주노동도 절반이상 도입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 시행 한 달째인 7월31일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을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865곳(64.1%)으로 집계되고 밝혔다.

865개 사업장 중 단협을 체결한 곳

은 371업체였고, 잠정 합의를 한 업체는 494개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고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이 832곳(96.2%)으로 대다수였고 33곳(3.8%)만 한도를 초과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동 급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1곳, 한국노총 1곳,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 2곳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도입률을 보면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89.7%(155곳 중 139곳)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67.3%, 739곳 중 497곳), 민주노총(50.2%, 456곳 중 229곳)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54곳 중 35곳(64.8%)이 면제한도를 도입했고, 이들 모두 고시한도를 준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삼성광주전자 "더위야 고맙다"

## 에어컨 판매량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삼성광주전자가 극성을 부리는 무더위 덕에 활짝 웃고 있다. 에어컨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어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LG전자의 7월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1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7월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쿨 서머' 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에어컨 매출이 부진했으나 7월부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신모델 4계절 에어컨의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도 7월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에어컨이 한창 팔려야 할 시기인 5월~6월 초에 이르지 않은 현상으로 에어컨 판매가 전년 대비 10~15% 가량 감소했으나 7월 이후의 판매 호조로 8월말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전력소모량이 적은 인버터 기능이 채택된 제품과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2in 1' 제품이 특히 잘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앤알 최오진(왼쪽에서 세번째) 대표이사과 파푸아뉴기니의 BEL사 칼 알로(두번째) 대표가 지난 2일 그린광주호텔에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투자장해각서를 체결했다.

# 1500만달러 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주)지앤알, 파푸아뉴기니에 수출

광주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업체로 코스타 상자기업인 (주)지앤알이 파푸아뉴기니에 1500만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수출한다.

지앤알은 지난 2일 그린광주호텔에서 최오진 대표이사과 파푸아뉴기니의 BEL(Bismarck Energy Limited)사 칼 알로 대표가 이같은 내용의 투자장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앤알은 BEL사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소규모 지역에서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지앤알은 엔지니어링과 부품 조달, 터키 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파푸아뉴기니는 지금까지 지열 발전을 해왔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앤알 최오진 대표이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100MW로 예상되는 파푸아뉴기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파푸아뉴기니 태양광사업의 성공적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73년 창립된 지앤알은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출발해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코스타 상자기업이다. 지난 2008년 9월 중국 선전에서 중국의 이징, 탐레이슬라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태양광 셀·모듈 생산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노사 조만간 만난다

## 타임오프 대립...사측 내주 임단협 개시 요청할듯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기아자동차 노사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사측은 정부의 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 촉구를 받아들여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주 중 노조에 공문을 보내 소하리공장에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성실교섭을 촉구하

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권고를 존중해 노조에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그러나 법 기준을 위반하는 전임자 관련 요구안과 임금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요구안을 명확히 구분해 교섭하겠다는 입장인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9일 기아차 노사 대표에 공문을 보내 장기간 교섭이 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협상을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기아차 사측은 지금까지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시행 안을 먼저 논의한 뒤 임단협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 지급 등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포함한 안을 놓고 임단협을 진행하지고 맞서왔다.

노조는 지난 6월 하순에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특근과 잔업을 거부해 현재까지 2만8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현대차 얼굴' 쏘나타의 굴욕

## 기아 K5 이어 모닝에도 판매 1위자리 뺏겨

출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고수했던 '현대차의 얼굴' YF쏘나타가 지난 6월 경쟁차인 기아 신차 K5에 왕좌를 빼앗긴 데 이어 7월에는 경차 모닝에마저 뒤지면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겼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YF쏘나타는 지난달 8469대가 판매되면서 1만105대가 팔린 K5에 1636대 뒤처졌다.

K5는 출시 직후인 지난 6월 쏘나타를 누르면서 국내 승용차 판매 부문 1위에 등극하면서 불풍을 일으킨 데 이어 7월에도 베스트셀링카의 지위를 이어갔다.

눈에 띄는 것은 6월에 K5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쓴맛을 봤던 쏘나타가 7월에는 출시 이후 처음

으로 9000대도 못팔았다는 것. 그 때문에 모닝에게도 역전당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닝은 지난달 8758대가 판매되면서 쏘나타에 289대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쏘나타는 지난해 9월 중순에 출시됐음에도 그달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이후 12월까지 1만 6000~1만7000대 이상을 팔면서 독보적인 판매기록을 세웠다.

특히 K5와 모닝은 타임오프제 실시 여부로 인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기아차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충격은 더욱 크다. 지난 6월 초부터 특근을 거부하던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는 잔업마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대기업 현금결제 대상 2·3차 협력사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이들 대기업이 내놓았거나 내놓기로 한 대책의 실효성도 아직 불확실할뿐더러 기간 하도급 업체와 상생이 외면하다가 정부가 대기업 압박에 나서서 부랴부랴 여론 무마용으로 마련한 '면피성 대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2일 협력업체 등록절차를 완화해 2·3차 협력업체를 현금결제 대상인 1차 협력업체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도 1·2차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며 1차와 2·3차 협력업체간 거래에 개입할 방침이다. 1차 협력업체가 2·3차 협력업체에 마치 대기업처럼 군림하는 기존 관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 한국 수출 세계 9위

## WTO보고서... 364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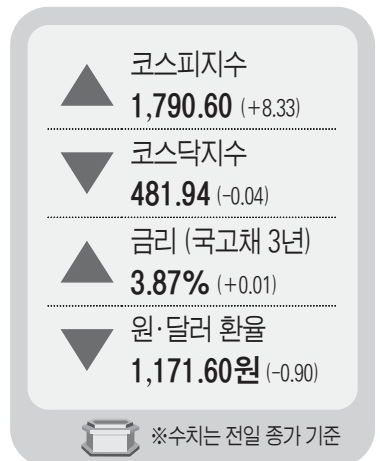
경제위기가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상대적으로 선전한 한국은 세계 9위 수출국에 올라 첫 '세계 톱10'에 진입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는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0'에서 한국은 2009년에 3640억달러 어치를 내다팔아 세계 수출의 2.9% 비중을 차지하면서 9위에 올랐다고

집계했다.

이는 2008년 12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귀청기(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귀청기(보청기)는 청각 후 유전자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귀청기(보청기)를 착용하면 청각장애 예방을 도와줍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동구 서대동 11-1  
문의: 061-277-9348

본점: 광주광역시 동구 서대동 11-1  
문의: 061-277-9348